

태안지부, 고객사랑! 가족사랑!

이번호 탐방의 주인공은 태안지부이다. 태안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해안선의 길이만도 530.8km에 이르며, 12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30여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간직한 곳이다.



▲ 어선무상점검, 신온항

충남 태안군,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일원을 관할하고 있는 태안지부는 지난 2004년 10월 1일 태안출장소에서 지부로 승격되어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장현재 지부장을 비롯해 강순초 부장, 정용근 과장, 구대용 과장, 오형기 검사원, 정미숙 주임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

태안지부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한 태안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 장현재 지부장

주고자 현장방문간담회, 지역정비업체간담회, 유관기관간담회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현재 지부장은, “주기적인 어촌계 방문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부 전직원이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야간항해에 필수장비인 레이더반사기 설치에 따른 경제지원을 해줄 것을 태안군에 건의하여 태안군으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며, 소유자변경에

따른 증서재발급 시 통상적으로 해당시군으로부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여 온라인 공문접수를 통한 증서 즉시(Non Stop)발급을 통한 고객대기시간을 줄임으로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안군청, 태안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안면도 백사장항과 소원면 모항에서 유류사고 피해 때문에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어선들에 대하여 조업을 위한 기관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태안지부는 최근 소형선박조종사면허시험대비 무료특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시험교재를 전달함으로써 고객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태안지부는 지난 6월 12일 전직원이 노아의 집을 방문하여 생필품 전달 및 노아의 집 주변을 청소하는 등 1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태안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태안지부는 외부고객만족뿐 아니라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전직원 생일에 생일꽃바구니 증정, 월 2회 이상 탁구, 배드민턴, 볼링 등 체육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직원 화합에 힘쓰는 한편, 직원별 책임학습 실시와 함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부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10일, 10월 24일에는 각각 제5회 태안군 안면도 전국 마라톤 대회와 제1회 신진도 꽃게축제에 참석하는 등 지역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장현재 지부장은, “예전부터 꽃게, 우럭, 광어, 굴, 바지락 등 다양한 어종과 해산물이 유명했던 청정 태안이지만 작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나 요즘 들어 장어 및 꽃게경매 등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고 말하고 이어, “어업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People Inside

태안지부 오형기 주임



오형기 주임은 작년 4월에 입사해 검사현장에서 8개월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검사업무 경험을 쌓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고 배울점도 많지만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오 주임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유대의 끈을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 주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공단의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